

뤄쓰(呂四)항구, 한 어민의 '성취감'



“오늘은 어선마다 꽃게와 참조기 1,000여 킬로그램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9월 7일 저녁, 중국 4대 고기잡이항구의 하나인 뤄쓰항구에서 기사는 차둥이쑤(啓東 訖森)수산회사의 관계자인 차오궈안(曹國安) 씨를 만났다. 그는 기자에게 어선단 팀장이 만선한 어선을 사진 찍어 윗쪽에 올린 것을 보여주었다.

어부 출신인 차오궈안 씨는 최근 몇 년간 사업을 꾸준히 확장하면서 선단 두 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 중 배 11척으로 구성된 선단은 주

로 해상 조업을 담당하고, 배 14척으로 구성된 선단은 운송과 어획물 구매 등을 담당하는데 다른 어민들과 협력해서 설립한 것이다. 어민들은 매일 임할 필요 없이 조업한 어획물을 바다에서 직접 차오궈안의 선단에 넘기면 된다.

뤄쓰 어민들은 모두 BDS(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를 장착하였기 때문에 바다에서 휴대전화와 위성 등 통신수단으로 항구와 수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 그는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선단이 윗쪽에 올린 사진과 현장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정장에서 통신설비뿐만 아니라 구조 장비까지 제공해주었다고 하였다. 또 풍랑주의보 등을 실시간으로 통보해주며, 한국 해역 20해리 지점에 접근하면 정부해양감시 부대에서 미리 경고해준다고 하였다.

“항구 개조를 위해 정부는 수익 위원을 투입했습니다. 비좁고 길이 자주 막히는 낡은 고기잡이 부두를 현대적인 항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덕분에 외지에서 특히 상하이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1근당 15위안 혹

은 16위안에서 30여 위안으로 불안정하지만 한국에서는 1마리당 2만 원의 가격에 날개로 팔리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는 한국으로 매년 1,000여 톤의 꽃게를 수출하며 매출액은 약 500만 달러에 달한다.

“항구 개조를 위해 정부는 수익 위원을 투입했습니다. 비좁고 길이 자주 막히는 낡은 고기잡이 부두를 현대적인 항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덕분에 외지에서 특히 상하이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해산물 소매도 배로 늘어나게 되

었습니다.” 차오궈안 씨는 정부에서 한 일이 이뿐이 아니라고 하면서 해마다 꽃게, 해파리 등 치어를 방류해 어민들이 그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그는 올해 총밍(崇明) 해역의 해파리 크기가 많이 커지고 참조기 또한 풍년을 맞이하여 어민들의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였다.

“정부는 낚은 선박을 개조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차오궈안 씨는 어선 11척 중의 8척을 개조하였다. “저는 차동에서 낚은 선박을 가장 먼저 개조하였

습니다. 배 한 척을 개조하는데 약 40만, 50만 위안을 본인이 부담하고 정부에서 나머지 60여만 위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차오궈안 씨는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어업협력 사업을 잘 발전시켜 직원들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표시하였다. 현재 그의 직원 중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은 매달 2.5만 위안을 받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차오궈안 씨의 어선단은 매년 2,000만 위안 이상의 순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新华报业传媒集团 主办
总第254期
联系电话:0086-25-58680903
E-mail: xhbw@xhbw.net

欲知更多新闻, 请扫描右侧的二维码。
中江网英文频道

물의 온도
쭈저우 고성의 변문(鐘門)

반문은 현재 쭈저우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고대 수로 성문이다. 터닝기(盤車)로 거대한 수문을 열고 닫으면서 왕래하는 사람과 선박을 통제하는데 도시를 수비하기 위해서이다. [저우런더·周仁德 촬영]

'토박이 전문가'와 '향토 수재(田秀才)'의 창업스토리-향토 인재, 특기 하나로 시장 정복

자사호 노동자 10만 명, 연간 생산액 78억 위안, 출치기 염색 관련 종사자 8만 명, 최고 소득자 연간 소득 50만 위안. 수정 공예품 창작, 조각, 마케팅 관련 인재 유치, 수정산업 연간 거래액 160억 위안 창출... 최근 장수 혁신 중점프로젝트 교류회의에서 '토박이 전문가'와 '향토 수재'의 고무적인 창업스토리가 전해졌다.

전통기술 '살리기'
자사호 노동자 10만 명은 이십시 당수진 시왕촌 당시기 판짜평(范澤鋒)이 자사호공예에 관광 건설과 촌민들을 이끌고 사오강(小康)사회로 매진하는 든든한 힘이다.

자사호 제작은 시왕촌이 200여년을 계승해 온 수공예기술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한때 종사자는 서너 가구밖에 되지 않았다. 2009년, 시왕촌은 수정산업 연간 거래액 160억 위안 창출... 최근 장수 혁신 중점프로젝트 교류회의에서 '토박이 전문가'와 '향토 수재'의 고무적인 창업스토리가 전해졌다.

하이안현(海安縣) 당위원회 조직부 우관(吳楠)에 의하면 홍목(紅木)조각공예는 현지 전통기술이다. 하지만 기계화 생산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많은 수공예조각가

가 전업하였다. 이에 하이안현은 전통공예를 보호하기 위해 현지 홍목조각 대가를 토대로 스승과 제자 연결행사를 진행하였다. 대가는 우선 기초가 있는 학생 10명을 뽑아 후계자로 삼은 다음, 10명의 학생이 또 기초는 없지만 조각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각각 10명씩 뽑아 제자로 삼게 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동하이현에서 가장 필요한 향토인재는 수정산업인재이다. 동하이현은 현지에서 직접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수정공예 대가를 초빙하기도 하였다. 중국 육조각 대가이자 바오딩(保定) 수정조각 무형

문화재인 장위청(張玉成)은 등하이에 작업실을 설립하면서 4,000㎡에 달하는 공장 건물을 5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는 혜택을 제공받았다. 또 창업가동자금 150만 위안과 작업실 인테리어 보조금 100만 위안을 지원 받았다.

단순 전송보다는 '융합 혁신'에 힘써
정부의 지도와 지원 아래 전통수공예기술은 보호 및 전송되고 있지만 그 발전은 현대사회와의 융합 혁신이 필수이다.

“우리는 중앙미술대학교와 칭화대학교의 미술대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하였습니다. 또 창업기지를 설립해 대학교 졸업생을 유치함으로써 시대적 요구를 담아낸 상품을 설계하도록 하였습니다.” 판짜평이 말했다. 자사호 장인인

그는 앞장서서 자신의 특기를 공개하였다.

필자는 융합과 혁신이 잘 된 전통기술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난통의 출치기 염색기술은 중국공예미술대가 자오바오린(焦寶林)의 지도 아래 회화예술, 자수 등을 융합해 '신용교(新龍絞)', '신봉교(新縫絞)', '신추점(新口摺)' 등 새 기술을 개발하였다. 덕분에 전통 출치기 염색기술은 현대미와 고전미가 적절히 어우러졌고 상품도 예술품으로 '진화'하여 현지의 중요한 부민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천하의 향토 인재를 가려 뽑아 쓰기
향토 인재는 민간전통공예, 현대실용기술, 원림건축 등 분야에 뿌리박고 활동하는 인재로 특기를

가지고 있는 장인이자 혁신에 뛰어난 경영자이다. 올해 8월, 장수는 향토인재 '세 가지 리더십'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기술전승, 산업발전, 부 창출 등 면에서의 리더십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였다. 한편 발굴과 육성, 지원, 서비스 등 방면의 제도를 보완하였다.

관계자에 의하면 지방 당위원회 정부는 마땅히 인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천하의 영재를 가려 뽑아야 한다. 또한 인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추고 장기적인 인재계획을 세우며, 인재를 위한 발전 플랫폼을 건설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실정에 맞게 산업 관련 실용 인재를 유지해야 한다. 대가뿐만 아니라 기능공도 초빙하며, 장인뿐만 아니라 마케팅 등 방면의 인재도 육성해야 한다.

자사호 장인들, 이상(宜興)서 재주 겨루기

9월 18~19일, 장수성 제1회 향토인재 전통기술 경진대회 자사호(紫砂壺) 제작(宜興의 성급예선경기가 이상(宜興) 당수진(丁蜀鎮) 문화기술학교에서 개최되었는데 장수 각지에서 온 선수 46명이 대회에 출전하였다.

장수성 긴급 뉴스

헨윈강, 국내 첫 농업대외개방협력시험구로 선정

최근 중국 농업부 웹사이트에 국내 첫 농업대외개방협력시험구 10개가 발표되었는데 장수에서는 헨윈강이 최초로 선정되었다.

“농업대외개방협력시험구” 건설은 ‘일대일로’ 건설과 농업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국내외 플랫폼 두 개를 구축한다. 시험구는 2년의 시험을 거쳐 재정, 금융, 보험, 어음 할인료, 검사, 검역 등 정책을 제정 및 시행하고 농업의 대외개방과 협력의 시스템을 최적화함으로써 참고 가치와 보급 가치를 갖춘 경험 모델을 형성하도록 한다. 한편 산업사슬을 최적화하고 농산물 무역을 강화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외 진출 기업들을 건설한다.

장수 조혈모세포 기증 600회 달성

9월 16일은 제3회 ‘세계 조혈모세포 기증자의 날’이다. 장수성 적십자사에 의하면 현재 중화골수은행 장수성지점에는 약 15만 명의 조혈모세포 기증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조혈모세포 기증을 성공적으로 600회 실시하였다.

장수성지점에서 실시한 600회 기증 중 30회 이상은 한국, 미국,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와 중국 타이완, 홍콩 지역으로 기증되었다. 중화골수은행의 신체검사에 합격된 지원자는 조혈모세포이식병원에서 외주형 조혈모세포를 채집하게 되는데 수술할 필요가 없다. 즉 골수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를 혈관으로 이동시킨 후 혈액성분 분리기를 통해 조혈모세포를 추출해서 이식에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골수에서 직접 채취하지 않고 ‘헌혈’하기만 하면 된다.

동풍(東風)웨다(悅達)기아 신차 잇단 출시

9월 15일, 연성국제자동차박람회 동풍·웨다·기아가 출시한 3종의 신차 기아 카이선(凱紳), KX CROSS, 페가스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얼마 전의 청두자동차전시회에서 전시한 포르테도 똑같이 호평을 받았다.

올해 들어 기아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는 중국 시장에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아자동차는 전략 재정에 나섰다. 2020년 100만 대 생산 및 판매 도전과 2025년 중국 완성차 업체 선두그룹에 진입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5년 NTF 전략에 따라 자동차의 스마트화, 전기화, 공유화를 추진하고 무인자동차 기술을 시장에 보급함으로써 2025년까지 최고 등급의 무인자동차를 개발하도록 한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기아자동차는 신차투입 전략을 추진하고 한꺼번에 4종의 신차를 출시하였다. 그중 기아 카이선, KX CROSS 두 차종은 ‘창립 15주년 기념식’에 출시하였는데 판매가격은 각각 12.88~14.98만 위안과 7.49~8.59만 위안이다. 페가스는 9월 말에 출시되고 포르테는 11월에 출시된다. 이상 4종의 신차는 시장에서 뜨거운

난징소프트웨어밸리, 청년창업 메카로 부상

이른 아침, 배낭을 멘 수천 수만 명 젊은이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쏟아져 나와 도로 양 옆의 약 2,000개 소프트웨어기업으로 향한다. 저녁에는 또 거대한 인파가 지하철역 속으로 가뭇없이 사라진다. 이는 중국(난징) 소프트웨어밸리가 기자에게 남긴 강렬한 첫 인상이자 약 21.4만 명의 소프트웨어 인재가 이곳에서 발전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난징소프트웨어 수입은 장수성의 40%, 중국(난징)소프트웨어밸리는 난징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1천 억급 소프트웨어산업기지’인 중국(난징)소프트웨어밸리는 중싱(中興), 화웨이(華爲), 룬허(潤和)소프트웨어 등 경쟁한 기업을 대거 유치하였다. 해당 기업들은 원시 촉각기를 거쳐 2차 창업단계로 도약하였다. 룬허소프트웨어는 규모가 가장 큰 장수 토종업체로 2006년 소프트웨어대도(軟件大道)에 입주하였다. 회사는 초반에 서비스의주로 시작하였지만 작년엔 5억 위안에 달하는 일본 소니사의 외주 수주를 거절하였다. 회사의 덩링(鄧玲) 부총재는 이렇게 말하였다. “최근 몇 년간 회사는 전략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손목을 잘라내는 용기(壯士斷腕)로 이윤율이 낮은 외주 수주를 줄이고 IT금융 등 고급업무를 주로 공략하였습니다. 회사는 현재 업무수익이 20여 억 위안에 도달하였고 중국 소프트웨어 100대 기업 반열에 진입하였습니다. 향후 5년의 목표는 세계 소프트웨어 100대 기업 반열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영문명칭은 HOPERUN인데 ‘희망을 향해 달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물결 한 개를 휴대하고 매일 창업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다크로스(난징)인큐베이터기지에서 테이블 한 개를 차지하고 일하는 것이 지우차이허쯔, 판위후둥(沈愷互) 등 초기창업팀의 일상이다. 이 인큐베이터기지는 커피숍처럼 오픈되고 융자 기회가 있으며, 해마다 50개 정도의 인큐베이터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어린 딸에게 날개 달아주고 싶은 정현숙 여사

사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할까! 개학 첫날, 일이 몹시 바빠 애 아빠도 난징으로 날아와서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같이 했다.

정여사는 딸을 어린 나이에 난징으로 유학 보낸 것은 애 아빠의 고집 때문이라고 하였다. 애 아빠는 난징으로 유학 보낸대도 서로 다른 사람과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정여사가 평소 즐겨 읽는 책에 있었다. 4세 아이들에게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습득하게 하면 지능 개발에 유리하다는 내용이 책 속에 실려 있었던 것이다. 정여사는 아이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 문화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명랑하고 자신 있는 개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여사가 딸을 난징으로 유학 보낸 것은 우선 이모가 난징에 살고 있고 한국과도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은 중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전 세계 14개 국가와 지역

의 사람들이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면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신라 어린이는 난징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매일 저녁 울고불고하며 어머니를 찾았지만 지금은 전화로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를 위로할 줄도 안다. 물론 가장 큰 발전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다. 가끔 난징에 온지 오래된 이모가 자기보다 중국어를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묻기도 한다고 했다.

정여사는 어떤 사람은 아이를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살게 하면 부모와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딸이 개학하고 나서 정여사는 서울로 돌아왔다.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고 다시 난징에 와서 아이의 뒷바라지를 할 계획이다. 딸이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고 하였다. 다행히 딸이 영어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과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혜이칭·張會清/사진

슬론도우시티 요가 축제

최근 2017가오쑤(高淳) 국제슬론도우시티·중국(제1회)요가헬스케어 축제 및 천인(千人)요가마라톤 대회가 난징 가오쑤 슬론도우시티에서 개최되었는데 중국 각지에서 온 요가 동호인 1,0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최근 장수성 여유극, 중국 국가 여유극 일본 주재 사무소가 주최하고 일본 해외관광추진위원회가 후원한 장수 ‘중·일 관광 교류의 달’이 난통에서 개막되었다. 교류의 달은 10월 말까지 지속되며, 약 1만 명에 달하는 일본 관광객이 장수성 장강 연안 도시를 단체 관광할 예정이다. 또 일부 관광단은 난징, 쭈저우, 양저우, 난통 등 4개 도시의 테마교류행사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 관광업계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일본관광업협회, 일본전국관광협회, 관광상품을 두고 여러 차례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일본교통공사, 일중평화관광 등 여행사는 중·일 국교 정상화 45주년을 양강 유망도시 관광을 주제로 장수 관광코스 15개를 새로 개발하였는데 일본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개막식 당일 일본 관광객 100여 명이 오사카에서 전세기를 이용해 난통에 와서 4일 간의 난통, 쭈저우, 우시 관광을 시작하였다.

장수의 한인사회